

한반도 전쟁 위기 부를 ‘트럼프의 도박’

美 전문가 ‘미군 철수 주장’ 비판
북한, 한국 시험하려 도발할 것
“트럼프, 전쟁 방지 보장해야”



오해런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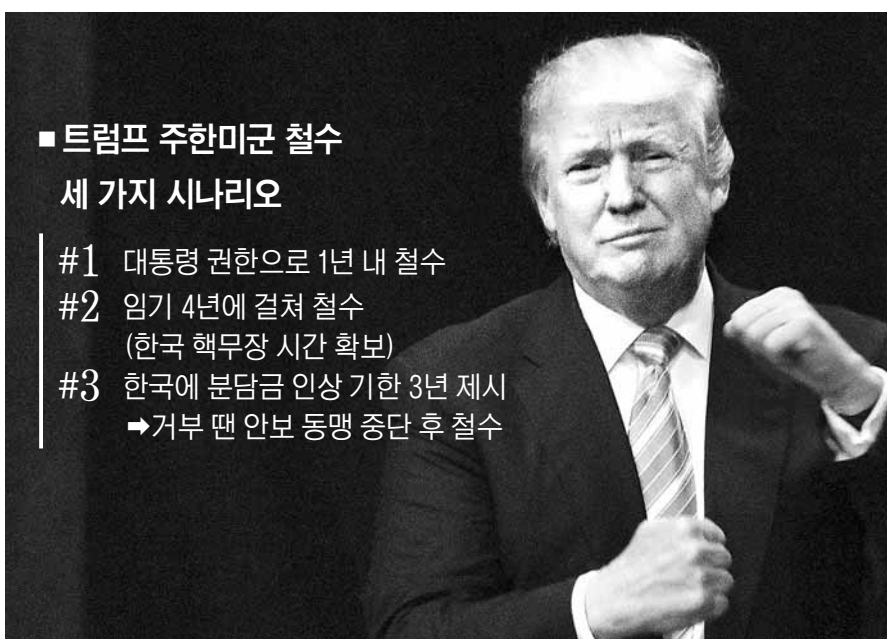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해서 북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캠프의 어드바이저이기도 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해런 선임 연구원은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은 ‘트럼프의 위험한 한국 도박’(Trump’s Dangerous Korean Gamble)이라는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진행될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영향을 진단했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내지 않고 있다면 분담 비용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오해런 연구원은 먼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국



■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세 가지 시나리오

- #1 대통령 권한으로 1년 내 철수
- #2 임기 4년에 걸쳐 철수 (한국 핵무장 시간 확보)
- #3 한국에 분담금 인상 기한 3년 제시 → 거부 땀 안보 동맹 중단 후 철수

사비로 사용하고 올해에만 2년의 핵실험을 하는 등 무기 증강에 힘쓰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는 명확하지 않다면 서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2만8000명의 주한 미군을 1년 이내에 철수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의회의 동의 없

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임기 4년에 걸쳐 미군 철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미군이 떠날 무렵에 한국이 핵무기를 갖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방안이다. 마지막은 3년 동안 만족할 수준으로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 안보 동맹을 중단하고 미군을 철수하는 시나리오이다. 오해런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매우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군 철수 직후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핵무기 비확산체제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미 한국이 GDP의 2.5%를 국방비로 쓰는 상황이라서 증액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GDP 기준 국방비 비율은 유럽 및 아시아의 미국 동맹 중 가장 높다.

오해런 연구원은 세 가지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의지를 테스트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재래식 무기를 전개하거나 핵무기를 폭발시켜 전쟁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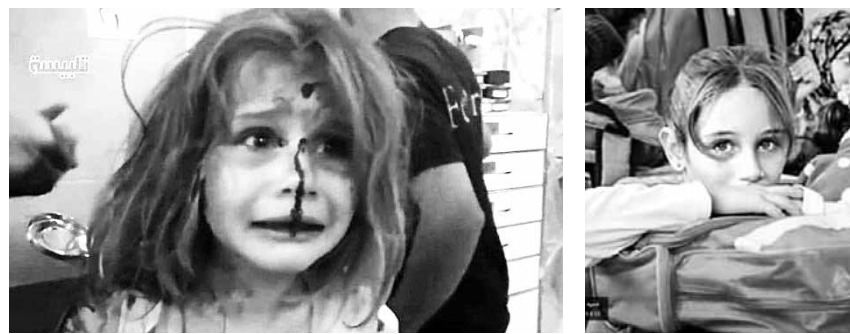
그는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의 미군 철수가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역지력이 한반도 등에서 작동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이 상황과 관련해 주사위를 굴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의 동맹을 갑자기 버린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시리아 8세 소녀의 눈물 동영상 지구촌 울려



폭격을 받은 시리아 소녀 아야가 치료받는 모습(왼쪽)과 폭격 전날 찍은 모습.

시리아 꼬마 올란에 이어 폭격에 다친 한 소녀의 사진과 동영상도 지구촌에 확산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시리아 활동가 그룹 탈베세미디어 센터(TMC)가 공개한 8살 소녀 아야의 사진과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형용사된 머리와 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아야는 이마와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팔과 옷에도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다.

영상에서는 치료를 받는 내내 울먹이는 아야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아야는 ‘폭격이 날 때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 말에 “집에 있었는데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했다.

아야는 울음을 그치지 않은 채 “아빠”를 부르며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다. 시리아 북서부 지역 탈비세에 사는 이 소녀는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집에 있다가 폭격을 당했다. 아야는 돌무더기

틈에서 구조됐으며, 부모와 동생들도 함께 발견됐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며 재회에도 성공했다.

한편 아야의 이 같은 모습은 폭격을 당하기 전날 학교에서 촬영한 사진과 극명한 대비를 이뤄 비극을 더하고 있다. 이 사진 속에서 머리를 말끔히 묶은 아야는 새침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번엔 거주지를 목표로 세 차례 공습이 이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공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알레포에서 폭격으로 무너진 주택 틈에서 구조된 다섯 살 난 올란 다크니시의 영상이 공개돼 많은 이를 충격에 빠뜨렸다. 작년 9월에는 터키 해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세 살짜리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이란 쿠르디의 사진이 전 지구촌에 경종을 울렸다. /연합뉴스

민낯 드러낸 트럼프, 2차 토론 뒤 오히려 지지율 올라

힐러리와 격차 11%P→7%P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 격차가 대선후보 2차 TV토론 후 11% 포인트에서 7% 포인트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트럼프가 음담패설 녹음파일 파문이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2차 TV토론을 계기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게 아나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토론 전날과 당일이었던 지난 8~9일 이틀간 5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된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46%대 35%로 11%포인트 격차였다.

특히 제3당 후보를 제외한 클린턴과 트럼프의 맞대결 구도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52%대 38%로 1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토론 다음 날인 10일 실시된 4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7% 포인트로 좁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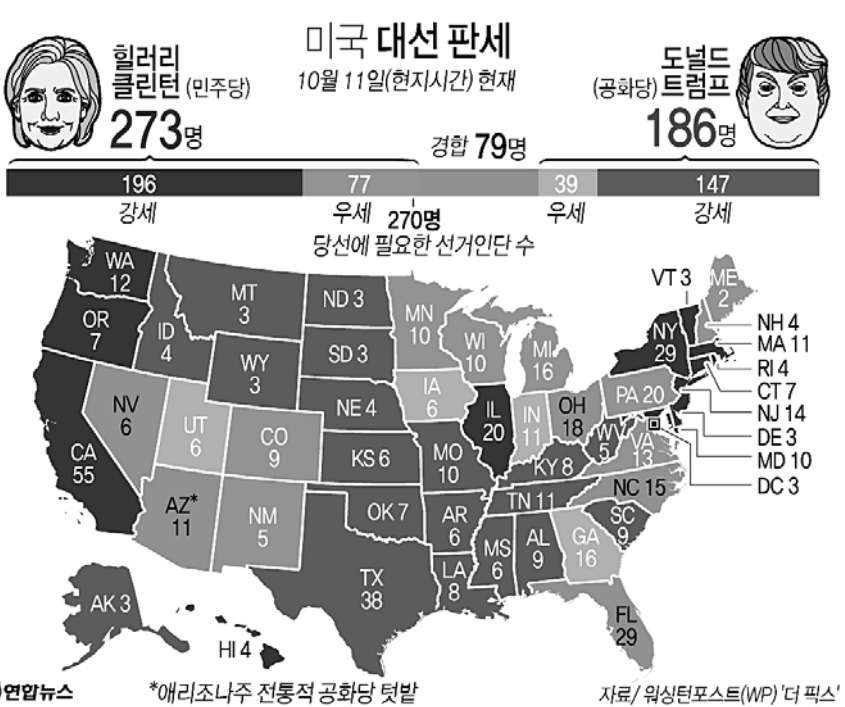
4차 대결, 양자 대결 모두에서 격차가 7% 포인트였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8~10일의 여론 추이를 보여주는 이들 두 조사를 합산하면, 4차 대결에서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6% 대 37%로 9%포인트의 격차였다.

양자 대결에서는 클린턴 50%, 트럼프 40%로 10%포인트 격차였다. 토론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음담패설’에 대해 사과하면서 동시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성추문을 다시 불고 늘어졌다.

이 여론조사를 진행한 공화당 측 전문가인 빌 매킨터프는 WSJ에 “주말을 거치고 공화당원들은 다시 한 번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는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2차 토론 직전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계속 후보로 밀어야 한다”는 공화당원들의 견해가 39% 정도였으나, 토론 다음 날에는 45%까지 올라갔다.

트럼프를 중도 하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토론 전 14%에서 토론 후에는 6%로 떨어졌다.



토론 후에는 공화당원의 89%가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에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 직전에는 이 비율이 74%였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8~9일 조사의 경우 ±4.38%이고, 10일 조사는 ±4.9%이다. /연합뉴스

中 “군사동맹으로 세계 위협”... 한국 겨냥?

중국 국방장관이 “어떤 국가”가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군사동맹을 강화해 전세계 전략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듣기에 따라서는 한국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12일 중국군망에 따르면 장완취안(常萬全) 국방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의 국방안보 포럼인 상산(香山)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전세계의 전략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국가”가 군사영역의 절대적 우세를 추구하며 부단히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타국의 안보를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자국의 절대적 안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위

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되풀이해왔다. 창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창 부장은 중국의 국방 당국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는 상장 계급의 현역 장성이다.

현재 상산포럼에 전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한국 대표단도 참석 중이다.

그는 또 “지정학적 위협 요인도 커지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외부세력’의 도발로 국지적인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적 안전에 불안요인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함과 전투기의 순시 활동으로 미중 대립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12일까지 열리는 올해 상산포럼에는 64개국에서 400명의 국방 관리와 안보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는 작년의 600명보다 줄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 경,공매 NPL 컨설팅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투자 추천 물건	수익형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PG충전소] 화순읍 대리 대로변 터널식세차시설 사무실포함 토지 3,228㎡ 건물 355㎡ 감정가 12억7천4백 ▶ 최저가 8억9천3백 ★ [공장] 광산구 오선동 진곡산단내 5개동공장 6차선도로접 토지 8,289㎡ 건물 4,589㎡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공장] 담양읍 삼만리 토지 9,902㎡ 건물 2,921㎡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육가공공장 감정가 44억5천1백 ▶ 최저가 31억1천6백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9,178㎡ 건물 5,842㎡ 장성백이사거리 인근 공장지대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5억5천9백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토지 5,977㎡ 건물 2,122㎡ 동화사거리 부근 공장지대 감정가 13억3천6백 ▶ 최저가 9억3천5백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9,917㎡ 건물 3,989㎡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정가 35억2천7백 ▶ 최저가 24억6천9백 ★ [공장]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3,305㎡ 건물 1,054㎡ 대마일반산업단지내 감정가 11억3천2백 ▶ 최저가 7억9천2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충전소] 광양시 진월면 진월C인근 4차선대로변 토지 12,914㎡ 공장 1,922㎡ LPG충전소 352㎡ 매매 37억5천 ★ [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제2산업단지내 토지 6,627㎡ 건물 4,226㎡ 매매 33억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정문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평당 2백만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상가 28억선 교환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편성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무인텔] 광산구 쌍암동 메가박스부근 무인텔 대지 5,564㎡ 건물 6,134㎡ 객실67개 보증금 5억 월4천4백 매매 1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요양병원 허가 취득) ★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 6억포함), 보증금 7천 월 4백6십 매매 13억5천 ★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인 토지 5,359㎡ 건물 595.4㎡ 2층공장 매매 평당 2백5십 ★ 광주 북구 풍암동 6층건물 1층 마트 2~3층 목욕탕 4~6층 여관 목욕탕, 여관직영중 보증금 1억1천5백 월 4백8십 매매 18억 ★ 광주 남구 백운동 왕복5차선도로 버스승강장부근 5층건물 대지 527㎡ 건물 1,221㎡ 보증금 5억 월 1천만 매매 18억 ★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건물 999㎡ 월 8백만 매매 17억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 전원 주택 토지 다수보유 /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